

블레즈 파스칼의 행복론

장성민 (총신대 신학과)

주제분 류

형이상학, 행복론, 변증론

주요 어

행복, 은총, 인간의 조건, 상상력, 기본전환

요약 문

본 논문은 블레즈 파스칼의 행복론을 그의 변증론적 관점에서 다룬 것이다. 『팡세』의 구조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비참’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간의 행복’으로 되어 있듯이 그의 행복론은 변증론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변증론의 성격상 사람들에게 그가 믿는 종교를 변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복론은 단순히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이며, 특히 그가 1654년에 경험한 영적 사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행복론이 영적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것은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의 은총에서 찾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두 철학자는 변증론 안에서 이성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파스칼은 인간의 조건 혹은 상황을 통해 행복론을 전개해 나간다. 파스칼이 말하는 인간상은 비참하면서도 위대한 존재라는 이중성을 갖는다. 여기서 위대함이란 변증법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비참을 아는 위대함이다. 파스칼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실존을 비참 앞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향해 눈을 돌리도록 하고자 하는 변증론적 목적 때문이다. 이런 의도 하에 그는 세속적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의 허구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준다. 즉 자아 안에서의 행복의 추구하고 자아 밖에서의 행복의 추구이다. 전자는 기만적 세력인 상상력과 기본전환을 통해서 행복의 허구를, 후자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에픽테토스의 철학과 몽테뉴의 철학 안에 나타난 행복의 허상을 보여준다. 파스칼은 이들 철학의 부분적 진리성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넘어 설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철학 안에서는 진정한 행복의 길에 이를 수 없다고 보고, 인간의 행복은 단순히 철학이나 인간학 안에서가 아니라 신적 진리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을 주장한다.

1. 사상적 배경: 생애

파스칼의 행복론을 논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이 그렇듯이 파스칼에게 있어서도 사상의 형성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삶과 사상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하나를 이루고 있다. 파스칼이 사실과 경험을 인식의 기초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그의 사상은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역사적 시간의 초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파스칼의 행복론도 예외는 아니다. 그것은 곧 그의 삶에 녹아있는 개념이다. 그의 생애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¹⁾

1) 제1의 회심(1623-1651년) : 1623년 6월 19일 클레르몽-페랑에서 태어난 블레즈 파스칼은 수학자였던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의 젊은 시절은 과학적 탐구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데카르트가 관념적 추론을 중시한 것과는 다르게 파스칼은 그의 철학적 입장에서 '사실적이고 경험적' 방법을 선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가 처음 회심한 것은 1646년이다. 이 때 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집에 머물던 두 명의 의사인 데상 형제들(MM. des Landes et de la Bouteillerie)을 통해서였다. 파스칼 사상의 뿌리가 된 아우구스티누스 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새 마음'(coeur nouveau)²⁾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통해서만 최고선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스칼의 행복론은 바로 이런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

2) 세속 시기(1651-1654년) : 파스칼은 건강을 이유로 의사로부터 과학적 연구보다는 기분 전환을 갖도록 권유를 받는다. 이 때부터 1654년 제2의 회심이 있기까지를 사교시기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사교시기에 대해서 질베르트는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교생활은 파스칼에게 있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시기였으며, 후에 변증론을 구상하는 데 유용한 것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의 행복론에 대한 착상은 이 시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파스칼이 사교계를 접하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사람들은 메레와 미통(C. Méré et D. Mitton)이다. 그들을 통한 세상의 경험은 그에게 변증론적 자료들이 되었다. 특히 거기서 그가 발견한 것은 '변덕, 권태, 불안' 가운데 처한 인간의 조건이다. 그래서 그가 『팡세』 안에서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 혹은 불행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3) 제2의 회심(1654-1662) : 파스칼의 사교생활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볼 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은 그런 생활에 대한 고뇌와 혐오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질베르트의 말에 의하면, 그의 지성은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으며 아무도, 어떤 것도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없었다고 한다. 1655년 1월 25일의 편지에 보면, 파스칼은 '자기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도록 작용한 것'들에 대한 혐오,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1654년 11월 13일 밤, 파스칼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꾸는 최대의 사건이 있었다. 그 날 밤

1) Gilberte Périer, *La vie de Monsieur Pascal*, Blaise Pascal, *OEuvres complètes*, "l'intégrale"(Paris: Seuil, 1963), 1963, 1733쪽. 파스칼의 글은 이 책의 쪽수를 따르고, 『팡세』의 인용은 본 책에 나와있는 라퐼마판(Ed. Lafuma)의 단장 번호를 따른다.

2)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역설했던 생-시랑(Saint-Cyran)의 표현이다.

의 경험을 기록한 메모리알(Mémorial)에는 ‘불’이라고 적고 있다. 구이에(Henri Gouhier)는 이 때의 사건을 바울과 유사한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³⁾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그가 자연의 빛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계시된 초자연적 은총의 하나님이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은 ‘확신과 환희, 평화, 순종’을 동반한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과학적 탐구, 이성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는 이때 경험한 사건을 바탕으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변증론을 계획하게 된다. 따라서 그의 행복론은 단순히 개념적이지 아니라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변증서인 『팡세』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상한다.

- 제1부 :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비참
- 제2부 :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간의 행복
- 달리 말해서
- 제1부 :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 본성 그 자체에 대해서
- 제2부 : 구속자가 있다는 것. 성경에 의해서⁴⁾

우리는 여기서 파스칼이 구상한, 변증론적 구조 안에 나타난 행복론에 대해서 다루어 보자 한다.

2. 인간의 조건 혹은 상황

파스칼의 행복론은 먼저 인간의 상태를 현상학적으로 드러내는 데서 출발한다. 참된 선 혹은 행복의 추구는 인간본성의 모순에 대한 설명 다음에 나온다. 그것은 불행을 설명함으로써 행복을 추론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⁵⁾ 파스칼이 말하는 인간상은 비참하면서도 위대한 존재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그는 위대성의 근거를 생각하는 존재에 둔다.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신 보다 훨씬 우세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갈대’로 상징되는 인간은 위대한 존재가 된다. 그는 “그래서 우리의 존엄성은 온전히 생각하는 데 있다”⁶⁾고 말한다. 즉 ‘채울 수 없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인간은 아무 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광대한 우주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는 것이다. ‘무한한 공간’인 우주에 비해 아주 작은 지구의 한 모퉁이에 서 있는 나의 존재를 생각할 때, 파스칼은 “이 무한한 공간의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⁷⁾고 말한다. 그러나 “공간에 의해서 우주는 나를 한 점과 같이 감싸며 둘러 삼키지만 나는 생각에 의해서 우주를 포용한다.”⁸⁾ 그러면 파스칼이 여기서 위대성의 조건을 사유와 결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사유의 인식능력을 통한 인간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실존적

3) Henri Gouhier, *Blaise Pascal : Commentaires*(Paris: Vrin, 1971.) Ch. I. 참조.

4) 단장 6.

5) Francis Kaplan, *Les Pensées de Pascal*(Paris: ellipses, 1998), 42쪽.

6) 단장 200.

7) 단장 201.

8) 단장 113.

상황을 보여주려는 변증론적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존적이며 역설적 인간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 안에 공존하는 위대와 비참의 이중성은 구체적으로 자아성찰을 통해서 나타난다. 자신의 비참을 반성하는 인간의 위대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비참한 것이지만,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⁹⁾ 이처럼 파스칼의 역설적 인간상은 비참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위대한 인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인간의 위대성이 아니라 비참한 존재로서의 인간에 맞추어져 있다. 이런 이유에서 비참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인간의 위대성이 비참을 보상함으로써 그 비참과 불행에서 빠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위대성의 표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참을 보상하지는 못한다. 위대성이란 단지 비참을 깨닫는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위대성이다.¹⁰⁾ 파스칼은 인간의 비참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만은 모든 비참을 보상해주고 없애 버린다. 이것은 괴물처럼 기이한 것이며, 분명한 착각이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서 불안 가운데 그것을 찾는다. 모든 인간들이 하는 것이다. 누가 그것을 찾게 될 것인지 보자.¹¹⁾

인간의 조건 혹은 상황이란 본래 타고난, 그래서 인간 스스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실존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반성할 때 파스칼의 표현에 의하면 ‘진율’(effroi)에 사로잡힌다. 그 이유는 스스로 ‘정당화할 수 없는’(injustifiable)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인간의 위대성이 비참에 대한 인식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실존적 상태에 대한 무지의 지를 드러낸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놓아두었는지,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끔찍한 무지 속에 있다. 나는 나의 육체, 나의 감각, 나의 영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모든 것들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스스로는 물론 그 밖의 것들도 모르는, 나의 이 부분 자체가 무엇인지 모른다.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의 끔찍한 공간을 본다. 그래서 나는 광활한 우주의 한 구석에 매달려 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 왜 나는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 있는지, 왜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이 내 앞에 놓인 모든 영원과 내 뒤에 오는 영원 속에서가 아닌 이 시점에 지정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내가 보는 것은 무한뿐이며 이것은 단지 한 개의 원자, 하나의 그림자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곧 죽으리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모르는 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자체이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또한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다만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허무 속에, 아니면 성난 신의 품으로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뿐이다. 이 두 조건 가운데 어느 편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나약함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나의 상태이다.¹²⁾

인간은 위대하면서도 비참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이것이 파스칼이 본

9) 단장 114.

10) Pierre Magnard, *Pascal ou l'art de la degression*(Paris: ellipes, 1997), 12쪽.

11) 단장 477.

12) 단장 427

인간의 상태이다. 여기서 무지는 무지의 지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소크라테스식의 변증법적 조건이 아니라 절망의 선에 서있는 인간 실존의 표현이다. 자연적 인간은 아무런 목적 혹은 의의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인간의 조건만을 두고 말하자면 다만 회의주의, 비관주의만 있을 뿐이다. 유일한 확실성은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절망의 상징인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실존이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으로 던져진 인간의 실존에 비교될 수 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죽음의 예기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가능성으로써 끌어당기는 행위이다. 즉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본래적 가능성이다. 여기서 그는 공포보다도 더 보편적이고 존재론적인 감정으로서 ‘불안’(Angst)을 생각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불안은 인간이 이 세계에 근원적으로 홀로 던져졌다는 철저한 고독에 연결된 감정이다.¹³⁾

마찬가지로 파스칼이 생각하는 인간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발견하는 것은 비참과 죽음뿐이다.”¹⁴⁾ “우리는 홀로 죽을 것이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삶 그 자체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도 없고, ‘인생은 단지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인간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존재이다.¹⁵⁾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한 무지 속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불행 속에 있다”¹⁶⁾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파스칼이 절망적 인간의 상황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는 이유는 그의 변증론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비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간의 행복’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주곡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비참은 죽음 앞에서 극대화된다. 파스칼은 인간을 비참과 절망 앞에 세워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찾도록 설득하고자 한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본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¹⁷⁾ ‘모든 행동의 원동력’¹⁸⁾인 의지의 방향전환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관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써, ‘모든 움직임의 기초인 행복에의 열망’¹⁹⁾, 즉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의지는 그 원리에서 ‘탐욕’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²⁰⁾ 그 본래의 목적을 지향함으로써 인간의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자아 밖에서 행복의 추구

1) 상상력

파스칼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될 때 인간은 상상력, 기분전환, 호기심, 허무 등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상상력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대표적 요소로서 파스칼은 그것을 ‘기만적 세력’(puissances trompeuses)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혼란에 빠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13)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Tubingen: M. Niemeyer, 1972), §50 참조.

14) 단장 401.

15) Jacques Attali, *Blaise Pascal ou le génie français*(Paris: Fayard, 2000), 363쪽.

16) 단장 75.

17) 단장 148.

18) 같은 곳.

19) Philippe Sellier, *Pascal et Saint Augustin*(Paris: Colin, 1970), 82쪽.

20) 단장 502.

데카르트는 상상력의 개념을 파스칼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본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정신 혹은 이성은 상상력이 표상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그는 상상력을 기하학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²¹⁾ 우리가 천각형(un chiliogone), 즉 천 개의 변을 가진 다각형을 삼각형의 세 변처럼 상상할 수 없고 기껏해야 많은 변을 가진 다각형을 상상하게 된다. 상상의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도형을 막연히 표상하지만 이 도형이 천각형이 아님은 분명하다. 우리는 천각형과 만개의 변을 가진 다른 다각형을 구별하여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다각형을 혼동함이 없이 아주 분명히 인지할 수 있으며 또한 천각형을 상상력의 도움이 없이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거기에 내접하거나 외접한 원의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으며, 변과 변심거리(apothème)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고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데카르트는 인식론적 전망 안에서 상상력을 이성보다 하위의 인식기능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데카르트에 있어서 상상력은 혼돈되거나 혼합적인 것이 아니라 명석 판명한 관념에 따라 사유하는 이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고 극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관점은 인간을 오류로 빠지게 하거나, 허울 혹은 망상을 실재로 간주하게 하는 상상력의 힘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할 수 있는 이성주의의 승리를 보여준다.²²⁾

반면, 파스칼에게 있어서는 ‘오만한’ 이성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그것은 결코 인간에게 있는 위대성의 표지가 아니라 무력의 표지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지배적인 부분이며 오류와 허위의 주인이다. 더구나 항상 잘 속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간교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의 확고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진리에도 확고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²³⁾

이러한 상상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성은 진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다. 반면 데카르트는 오류의 원인이 인식과 의지의 교류에서 생긴다고 보고, 명석 판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에 의지를 작용시키기 때문에 의지가 참과 선에서 벗어나고 오류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명석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에만 동의한다면 얼마든지 오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그러나 파스칼은 오류와 허위의 주된 원인이 이성 위에 군림하여 다스리는 상상력의 작용으로 보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성을 지배하고 통제하기를 좋아하는 이성의 적인, 이 오만한 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 안에 제2의 본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상상력은 행복한 자들과 불행한 자를, 건강한 자들과 병든 자들,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만든다. 그것은 이성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거나 또는 회의하거나 부정하게 만든다. 그것은 감각을 마비시키거나 다시 느끼도록 한다. 그것은 또한 우매한 자와 현자를 만든다.²⁵⁾

이처럼 상상력의 힘은 단순히 이성의 힘을 제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복의 허상을 따라가게 한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대상을 계기로 우리의 심리적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21) René Descartes, *Meditationes de prima philosophia*, AT., IX-1, 5758쪽.

22) Jean Brun, *La philosophie de Pascal*(Paris: PUF, 1992), 61쪽.

23) 단장 44.

24) 최명관, 『방법서설·성찰 데카르트연구』(서울: 서광사, 1983), 170-172쪽 참조.

25) 단장 44.

이미지 작용으로서, 다시 현실에 반영되어 그것을 변형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상력의 힘으로 인해 진리를 올바로 발견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의 상황은 기쁨, 공포, 절망, 불안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상상력은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도 하고, 큰 것을 작게 축소하기도 한다. 인간은 이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류와 허위의 주인’인 상상력에 따라서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상상력의 주된 위험은 가치를 뒤바꾼다는 것이다. “상상력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한다. 상상력은 이 세상의 전부인 미를 만들고, 정의를 만들며 또한 행복을 만든다.”²⁶⁾ 여기서 행복은 상상력이 만들어 낸 허상의 행복이다. 기만적 세력인 상상력으로 인해 인간은 행복의 환영에 매달려서 살아간다. 인간의 이런 허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변증론의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디베르티스망’ 혹은 기분전환

파스칼에 의하면 불행의 원인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조건, 즉 어느 곳에서도 위로 받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본래적인 인간조건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비참을 자각함으로써 위대성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각은 인간의 비참을 가중시킨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의 비참으로 인해서 오는 공허감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어떻게 이 비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이런 열망에도 불구하고 타락으로 인한 ‘불균형과 모순’의 인간은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리와 행복을 회구하지 않을 수 없지만 확실성도 행복도 소유할 능력이 없다.”²⁷⁾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인간의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 여기서 파스칼이 생각한 것이 ‘디베르티스망’(divertissement)²⁸⁾이다. 이것은 ‘기분전환’, ‘오락’, ‘위회’(慰戲), ‘시간보내기’, ‘마음돌리기’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스칼은 전통적 주제의 전환을 통해 그의 독창성을 드러내 보이는 반면, 이 주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가령 프랑소와 드 살(François de Sales)은 경건한 삶에 대한 소개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그것은 오락들에 대한 문제들, 즉 오락의 다양한 활동성에 대해 다룬 것일 뿐, 인간의 조건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서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비참과 불행의 상황에 직면한 인간은 그것을 성취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그것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자 행동한다. 그래서 파스칼은 “오락-인간은 죽음, 비참, 무지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다”²⁹⁾라고 말한다. 비참과 불행을 생각하는 것에서 ‘마음을 돌리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기분전환이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간의 비참을 일시적으로 감추어주는 기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니체 이후 현대 철학적 언어로 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이 생의 욕망과 관련하여 세우는 활동성, 사회적 관습, 신념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26) 같은 곳.

27) 단장 401.

28) 본 단어의 동사형인 ‘se divertir’와 동의어로 ‘se distraire’, ‘s’amuser’가 있고, ‘se convertir’와는 완전히 반대개념이다. 그리고 라틴어 ‘divertere’는 ‘détourner’(돌아서다,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는다.

29) 단장 134.

30) Pierre A. Cahné, *Pascal ou le risque de l'espérance*(Paris: Fayard- Mame, 1981), 102쪽.

파스칼에 의하면 기분전환은 의지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고통의 현실로부터 되돌아서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것은 항상 단순한 긴장풀기나 놀이, 즉 경기, 도박, 사냥, 흥미를 끄는 연극, 춤, 여인과의 대화, 게임놀이 등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심각하고 어렵고 위험한 일, 말하자면 외교, 상업, 전쟁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일상의 일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이제까지 아무도 풀 수 없었던 대수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학자들에게 과시하게 위해 서재 안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어떤 요새를 점령하였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³¹⁾ 또 다른 파스칼의 예를 보면, 행복은 쫓아가는 토끼나 도박에서 따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선물로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원치도 않았을 것이다.”³²⁾ 목적은 단지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는 것에서 마음을 돌리는 일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것처럼 ‘소란’과 ‘법석’을 즐기는 것이다. 권태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불행 속으로 빠뜨리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런 상황은 모든 계층에 적용되며 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파스칼은 “기분전환 없는 왕은 불행에 넘친 인간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³³⁾라고 말한다. 요컨대 많은 활동이나 기분전환과 같은 그런 행위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비참한 인간의 조건을 외면하고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행복은 기분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명한다.

이처럼 인생은 흘러간다.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과 싸움으로써 휴식을 찾는다. 그러다가 이를 극복했다면 휴식은 이것이 낳은 권태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것이 된다. 그 휴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소란을 구걸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재 당하는 비참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우리들을 위협하는 비참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사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태는 그 고유의 권세로서 자연적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와서 정신을 그의 독(毒)으로 가득 채운다.³⁴⁾

이처럼 기분전환은 권태를 낳고 권태는 또다시 소란 속으로 우리를 내몰아 버린다. 권태는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듯 참 행복으로 채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파스칼은 ‘기분전환’이란 제목이 붙어있는 단장 139에서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공허하고 오물로 가득 차 있는가”라고 결론짓는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자체가 더럽혀져있으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공허하고 오물로 넘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신적 은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역설을 함의하고 있다. 파스칼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변증법적 역설의 상황을 통해서 변증론적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자아 안에서 행복의 추구

행복에 대한 파스칼의 분석은에픽테토스와 몽테뉴에 대한 드 사시와의 대화(*Entretien avec*

31) 단장 136.

32) 같은 곳.

33) 단장 137.

34) 단장 136.

M. de Sacy sur Epictète et sur Montaigne)에도 나타난다. 드 사시는 생-시랑(Saint-Cyran)과 생글랑(Singlin)을 계승한 포르-르와얄(Port-Royal)의 책임자였다. 1655년 있었던 대화는 드 사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비서인 퐁텐누가 그 대화를 기록, 보존하고 포르-르와얄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보고서에서 그것을 발표하였다. 파스칼은 에픽테토스와 몽테뉴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상의 두 분과의 대변자’³⁵⁾라고 규정하면서 스토아주의와 회의주의를 대립시킨다. 그는 이 두 철학자들을 읽으면서 ‘사실의 진리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로서 일종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거울처럼’ 사용함으로써³⁶⁾ 변증론적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

파스칼이 노예출신의 로마 철학자 에픽테토스를 읽게 된 것은 그의 제자인 아리아누스를 통해 보존된담화록(*Entretiens*)과 편람(*Manual*)을 통해서이다. 에픽테토스는 평정과 인내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자신을 절름발이로 만든 그의 주인 에파프로디투스(Epaphroditus)로부터 당한 육체적 고통을 마음의 평정으로 참아냈던 그의 경험이 그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³⁷⁾ 순수 스토아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평정(ataraxie)의 상태, 즉 불안과 정념의 부재가 행복의 길이라고 본다.

그는 신을 그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그가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납득하며, 기꺼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는 예지로 행하시는 신이시므로 모든 경우에 자발적으로 그를 따라야 하며, 그래서 이런 태도가 모든 불평과 불만을 멈추게 할 것이며,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모든 일들도 평온한 가운데 참아내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란다.³⁸⁾

이와 같은 평정의 상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연극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자아를 지배하는 인간은 사물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본능의 종이 아닌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파스칼은 우리의 외부 사물로부터 떨어져서 자아 안에서 우리의 의무를 성취하도록 요구하는 이러한 스토아주의의 위대성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스토아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위대성을 잘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외부 사물들 안에서 안식을 찾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비교할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비참을 보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파스칼은 여기서 인간의 타락, 악, 죄를 본다. 더욱이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사물을 통해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했지만, “마음을 규제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³⁹⁾ 즉 그는 인간이 본래적인 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국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파스칼은 이러한 에픽테토스의 주장을 ‘인간의 능력에 대한 오만’ 혹은 ‘악마적 오만의 원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능력은 공허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경멸해야 한다”⁴⁰⁾라고 말한다. 인간존재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할 때, 파스칼에 의하면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

35) *Entretien*, 296쪽.

36) Henri Gouhier, 앞의 책, 97쪽.

37) Jean Brun, 앞의 책, 71쪽 참조.

38) *Entretien*, 293쪽 .

39) 단장 100.

40) 단장 119.

해서만이 새롭게 될 수 있다. 바꿔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배제하고 인간의 의무를 성취할 수도, 행복을 소유할 수도 없다.

에픽테토스의 스토아주의와는 반대로 인간의 무능과 나약함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몽테뉴의 회의주의가 있다. 몽테뉴는 인식의 상대성을 완전하게 보여주며 지식의 오만은 그의 공박의 대상이 된다.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의심 가운데 일체의 것을 문제 삼고, 그의 의심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의심 자체마저 의심 속으로 이끌어 가며, 의심의 원리라는 가설까지도 의심하는”⁴¹⁾ 불확실성이 그의 사상의 본질이다. 따라서 ‘확실성이야말로 그의 유일한 적’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인간의 오만과 자만을 공박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인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위대함이나 숭고함을 보지 못했다. “그는 두려움도 뉘우침도 없는 무사태평한 구원을 불어넣는다.”⁴²⁾ 그는 절대적 진리도 참된 선도 얻을 수 없다고 보고, 수고로이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모든 노력을 포기한 ‘평온한 무위’(l'oisiveté tranquille)를 최선의 길로 제시한다.⁴³⁾ 파스칼은 두 철학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나태를 공박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오만에 이르게 하고, 그 결과 믿음에 속하지 않은 가장 완벽한 정의라고 하더라도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에 납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철학자이다. 그리고 몽테뉴는 불신앙이나 사악에 다소라도 기울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위험하다.⁴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에픽테토스와 몽테뉴 철학읽기를 통해서 상호간에 결점과 오류를 밝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파스칼의 수사학은 이런 점에서 독특하다.

그가 스스로 자만한다면 나는 그를 낮춘다. 그가 스스로 낮추면 나는 그를 칭찬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불가해한 괴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때까지 나는 반대로 이야기한다.⁴⁵⁾

몽테뉴에게 있어서 ‘괴물 같은 존재’는 독특하고 예외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라면, 파스칼에게 있어서 그것은 악과 관련된 기이한 존재의 상징이다. 그것은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니다”⁴⁶⁾라는 명제로서 설명될 수 있다. 인간이 천사일 수 없는 것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짐승일 수 없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천사가 되고 싶어 하는 자가 짐승과 같이 되는 데 있다”라고 파스칼은 덧붙인다. 이것은 아마도 몽테뉴나 데카르트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⁴⁷⁾ 그러나 무엇보다도 파스칼은 모든 철학자들을 포함한 보편적 인간 안에 존재하는 본래적 오류와 죄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 인간들이여, 당신들이 당신 자신 안에서 비참에 대한 치유책을 찾고 있는 것은 헛된 일이다. 당신

41) *Entretien*, 293쪽.

42) 단장 680.

43) *Entretien*, 296쪽.

44) *Entretien*, 297쪽.

45) 단장 130.

46) 단장 678.

47) Jean Brun, 앞의 책, 73쪽.

들이 온갖 빛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당신들 자신 안에는 진리도 선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이다. 철학자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을 약속했지만 그것을 이행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당신들의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당신들의 진정한 상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⁴⁸⁾

이상에서 철학자들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최고선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제시하지 못한다. 에픽테토스와 몽테뉴, 독단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은 각기 상이한 측면에서 인간을 보았으나, 그들이 제시한 인간이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전자는 인간의 위대성만을 보고 인간의 당위를 강조하고, 후자는 비참의 현실을 보고 무위를 주장한다. 파스칼은 그래서 그들이 인간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가져왔다고 본다. 그렇다면 인간이해에 대한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분과의 오류의 원천은 현재 인간의 상태가 창조의 상태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한 쪽은 최초의 위대의 어떤 흔적을 주목하고 타락을 몰랐으므로 자연을 온전한 것으로서 치유자가 필요 없는 것으로 다루어 오만의 끝까지 이끌려갔는가 하면, 다른 한 쪽은 현재의 비참을 느끼고 최초의 존엄성을 알지 못하여 자연을 필연적으로 병들고 고칠 수 없는 것으로 다루었고, 그래서 극단적 비열 속으로 빠진 것이다.⁴⁹⁾

대화안에 나타난 두 철학자의 입장은 각기 일면의 진리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의 진리는 다른 편의 오류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둘을 종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선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헤겔식의 변증법적 종합은 가능하지 않다. 파스칼은 이와 같은 시도는 상호보완보다는 “전쟁과 전면적 파괴만이 초래될 것”이라고 본다. 그들의 철학은 이율배반으로 인하여 “상호 파괴되고 무화된다.”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가? 파스칼에 따르면, “약한 것은 자연에, 그리고 위대한 모든 것은 은총에 귀속시키는 것이다.”⁵⁰⁾ 여기서 그는 이런 연합은 오직 성육신, 즉 인자(人子, Homme-Dieu)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놀랍고도 새로운 연합”이다. 그들의 실패는 인간 안에 뿌리 내려있는 원죄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중보자(Médiateur)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인간은 본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은 철학이나 인간학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의 회복, 즉 신적 진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이 철학으로부터 결코 환원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⁵¹⁾ 이처럼 신적 진리의 소유와 행복의 향유를 하나로 보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과 일치하는 점이다.⁵²⁾

5. 맺음말

파스칼의 행복론을 여기에 다 논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의 개념을 설명하는 그의 입장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그의 행복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 충실해 있

48) 단장 149.

49) *Entretien*, 296쪽.

50) 같은 곳.

51) André Gounelle, *L'Entretien de Pascal avec M. de Sacy*(Paris: P.U.F., 1970), 103쪽.

52) Etienne Gilson, *Introduction a l'étude de Saint Augustin*(Paris: Vrin, 1987), 9쪽.

다. 그는 어떤 철학자보다도 인간실존의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삶 지평에서 인간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의 행복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행복은 인간존재를 해명함으로써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는 인간존재질서가 지닌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파스칼의 행복론은 먼저 인간의 상태를 현상학적으로 드러내는 데서 출발한다. 인간의 본성은 위대와 비참의 이중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인간은 비참 안에 머물러 있으며, 위대성의 표지는 가능성만을 갖는다. 행복의 향유는 인간의 본래적 위대성을 회복하여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회복'(réparation)은 내재적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스칼은 강조한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오류 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파스칼은 “인간은 은총 없이는 지워질 수 없는 자연적 오류에 넘친 존재일 뿐”⁵³⁾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자아 안에서도 자아 밖에서도 진리와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다.⁵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은 참 행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복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파스칼은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요 항상 행복 해지려고 준비하고 있으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⁵⁵⁾라고 말한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다니이드의 물통처럼 욕망은 바닥 뚫린 물통과 같이 그 자체가 채워질 수 없는 무한으로 정의된다. 무한에 유한을 무수히 더하더라도 유한은 무한과 결코 동일해질 수 없다. 이런 욕망의 무한성은 오랜 동안 ‘영혼의 병’⁵⁶⁾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래서 특히 스토아주의의 도덕에 있어서 지혜란 이런 욕망을 제한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욕망을 끊임없이 바꿀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무한에 대한 해석을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한다. 즉 선한 욕망의 무한성이다. 그것은 욕망의 대상을 최고선이며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두는 것을 말한다. 그럴 때만 욕망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파스칼의 행복론은 이와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에 기초해 있다.⁵⁷⁾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향유할 수 있는 복이다.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스토아학파는 말한다. “네 자신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안식을 찾을 곳은 바로 그곳이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한다. “밖으로 나가서 오락을 즐기면서 행복을 찾으라.”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병이 찾아든다.

행복은 우리 안에도 밖에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들의 안과 밖에 동시에 존재한다.⁵⁸⁾

여기서 변증론의 역할이 주어진다. 한마디로 참 행복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종교가 진정한 종교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행복 혹은 최고선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주어지는

53) 단장 45.

54) Jacques Chevalier, *Pascal*(Paris: Plon, 1923), 228쪽.

55) 단장 47.

56) Diogène Laërce, *Vie doctrines et setenances de philosophes illustres*, traduit R. Genaille(Paris:Garnier, 1933) t. II, Livre VII, 84쪽.

57) Henri Gouhier, *Blaise Pascal*(Paris: Vrin, 1986), 162쪽.

58) 단장 407.

선물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은총에 의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의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위대와 비참은 너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참 종교는 인간 안에 있는 위대성의 대원리와 비참의 대원리가 존재함을 필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한 참 종교는 반드시 이러한 놀라운 모순의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만 한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참된 종교는 한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 인간은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참된 행복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과 우리의 유일한 불행은 하나님과 분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어야 한다.⁵⁹⁾

이처럼 파스칼이 ‘... 해야만 한다’(il faut ...)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의지에 호소하는 변증론적 노력의 표시이다. 즉 이것은 인간이 생각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은총아래서 깨달음을 통해 최고선이요 행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K C I

59) 단장 149.

참고문헌

- Pascal, Blaise, *OEuvres complètes*, “l'intégrale”(Paris: Seuil, 1963).
- 최명관, 『방법서설·성찰 데카르트연구』(서울: 서광사, 1983).
- Attali, Jacques, *Blaise Pascal ou le génie français*(Paris: Fayard, 2000).
- Brun, Jean, *La philosophie de Pascal*(Paris: PUF, 1992).
- Cahné, A. Pierre, *Pascal ou le risque de l'espérance*(Paris: Fayard-Mame, 1981).
- Chevalier, Jacques, *Pascal*(Paris: Plon, 1923).
- Descartes, René, *OEuvres de Descartes*, Ch. Adam & P. Tannery(ed.), (Paris: Vrin, 1975).
- Diogène, Laërce, *Vie doctrines et setenances de philosophes illustres*, 2vol., traduit R. Genaille(Paris:Garnier, 1933).
- Gilson, Etienne, *Introduction a l'étude de Saint Augustin*(Paris: Vrin, 1987).
- Gouhier, Henri, *Blaise Pascal : Commentaires*(Paris: Vrin, 1971.).
- _____, *Blaise Pascal*(Paris: Vrin, 1986).
- Gounelle, André, *L'Entretien de Pascal avec M. de Sacy*(Paris: P.U.F., 1970).
- Heidegger, Martin, *Sein und Zeit*(Tubingen: M. Niemeyer, 1972).
- Kaplan, Francis, *Les Pensées de Pascal*(Paris: ellipses, 1998).
- Magnard, Pierre, *Pascal ou l'art de la degression*(Paris: ellipes, 1997).
- Sellier, Philippe, *Pascal et Saint Augustin*(Paris: Colin, 1970).

La conception du bonheur chez Pascal

Sung-Min, Jang

Ce mémoire traite d'une conception du bonheur chez Blaise Pascal dans son apologétique. Cela doit être considéré au niveau de l'apologétique dans la mesure où son plan de *Pensées* s'est formé en deux parties: "misère de l'homme sans Dieu" et "félicité de l'homme avec Dieu." Il est naturel qu'il a choisi le sujet très étroitement liés avec une vie humaine, parce que l'apologétique a pour objet de faire connaître aux gens son véritable religion. C'est pour cela que sa conception du bonheur n'est pas théorique, conceptuelle, mais factuelle, pratique. Particulièrement, elle est fondée sur son expérience spirituel qui s'est passée en 1654. Ainsi, ce que Pascal lie 'bonheur' et 'vie spirituelle,' c'est de refléter la pensée de Saint Augustin, c'est-à-dire de chercher la source du bonheur dans la grâce divine. Toutefois, les deux philosophes reconnaissent un certain rôle de la raison humaine pour l'apologétique.

D'abord, Pascal développe la conception du bonheur par la condition de l'homme. L'homme de Pascal a une dualité, c'est-à-dire que la grandeur de l'homme est grande en ce qu'il se connaît misérable. La raison pour laquelle il met l'accent sur cela, est pour le but apologétique qui s'efforce de nous rapprocher du véritable bonheur en plaçant l'existence de l'homme en face de son misère.

Sous cet intention, il dénonce à la fois la recherche du bonheur hors de soi et celle du bonheur en soi. La première se réduit à une course vaine dans l'imagination et le divertissement; la dernière, dans Epictète and Montaigne dont les deux routes sont deux impasses. C'est ni dans le monde ni en nous-même, que l'on pourrait trouver le véritable bonheur. Pascal prétend donc qu'il faut le chercher non pas dans la philosophie et l'anthropologie, mais dans la vérité divine.

Key Words bonheur, grâce, condition de l'homme, imagination, divertissement

к с і